



정용진 회장  
취임 1주년 맞아  
'성장 본격 재개'  
L1



Life

알테오젠  
신약·시밀러 확대  
글로벌 공략  
L2



# 맞춤형 진로설정, 장기 멘토링 취업준비 청년들 체계적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세분화, 단계별 참여 유도 직무탐색 등 6개월간 멘토링 기회 사업목적 맞는 현금사용 모니터링



## 서울시 청년수당 주요내용

만 19세~34세 미취업·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 ✓ 단계별 진로설정 프로그램  
자기이해·진로탐색·직무구체화·구직·취업 4단계로 구분해 체계적 맞춤 지원
- ✓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와 6개월간 장기적 직무탐색 기회 제공
- ✓ 청년수당 사용자 모니터링  
부적절한 현금 사용, 사용불가 항목 이력 등 사업목적에 맞는 현금 사용 심층 모니터링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올해부터 진로설정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2023년·2024년엔 구직·취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했다면, 올해는 청년 진로설정 단계를 세분화해 각 청년이 자신의 진로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설정 단계를 ▲ 자기이해 ▲ 진로탐색 ▲ 직무 구체화

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단발성·일회성으로 끝나는 멘토링이 아니라, 청년들이 6개월간 장기적으로 멘토와 소통하며 직무탐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수당 기 참여자를 포함한 기업 현직자들을 섭외해 취업·창업·수험·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멘토풀을 구성한 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참여자들이 청년수당을 책임성 있게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맞고 현금 사용이 가능한 곳에 현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해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나 현금 사용 가능 항목 외에 현금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지를 모니터링한다. 부적절한 현금 사용을 했을 경우 청년수당이 지급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청년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구직·취업 등 4단계로 구분해 보다 체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위해 15개 각 자치구별 청년센터에서 청년정책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 현직자들이 청년수당 참여자

# 서울시, 'RISE' 참여대학에 565억 투입

지역-대학 동반성장 참여대학 모집 AI산업, 인재양성 핵심... 글로벌 허브로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 사업' 참여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사업에서 AI 산

업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해 서울을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565억원으로, 대학별 최대 6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신청 가능한 단위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 대학별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과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으로, 교육부의 기관평가 인증 및 재정 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 "국내 탑5·세계 100대 대학 될 것"

2031년 100주년 기념 새 비전 발표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가 5일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31년 창학 100주년을 기념한 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캠퍼스와 충주글로벌캠퍼스의 새로운 슬로건은 각각 'KONKUK WAVE 2031', 'KONKUK GLOBAL RISE UP 2031'이다.

서울캠퍼스는 'KONKUK WAVE 2031'라는 슬로건 아래 '연구와 교육으로 건국다움의 명성을 만드는 글로벌 100년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국내 TOP5·세계 100대 대학'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진전략으로는 ▲대형 R&D 확대를 통한 연구비 수주 5000억원 달성 ▲학생 중심 교육을 통한 취업률·진학률 국내 3위 도약 등을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옛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완료

일제 잔재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양시는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 구(舊)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대장을 현대 한글 표기로 변환하고 디지털화해, 행정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총 13만6343면의 부채대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해당 데

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토지이동 연혁, 소유자명, 주소 등의 정보를 한글로 변환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조상땅 찾기 시스템과 연계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과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고교교육 기여대학 80곳에 2년간 585억

교육부, 기여대학 지원사업 발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발굴

정부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를 확대하고 대입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80개 대학에 2년간 5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기본사업 외

에도 자율공모사업을 선택해 추가 수행하는 16개 내외 대학에는 예산 지원(인센티브)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사업비는 사업관리비 7억 2400만원을 포함해 585억3300만원이다. 이중 선발된 80여개 대학에서 공통으로 진행되는 기본사업은 521억원으로, 대학당 평균 약 7억원이 지원된다. 선택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율공모 사업에는 총 57억9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학교당 기본 사업비 대비 약

5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공모사업은 ▲기본사업과의 차별성 ▲고교교육 기여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기존 사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고교교육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 ▲고교교육과 대학 간 연계 확대 ▲대학의 대입 관련 사회적 책무성 제고 ▲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률은 지난해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등 전체 2.64%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해 연간 79억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

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연계도 확대해 고용부담금 감면을 꾀한다. 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공립)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7 | 해질 / 18:31

3월 6일 (木)  
음력 : 2월 7일

수도권 날씨  
0 ~ 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0, 동두천 -4/10, 파주 -4/9, 서울 0/10, 인천 0/8, 수원 0/9, 평택 -3/9, 양평 -3/9, 용인 0/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국골프, PGA 부진의 늪 탈출할까...7일 아널드파머 개막 /사진 뉴스시  
▲유승민 체육회장, 국회 문체위 첫 참석 "변화 보여드리겠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2006년생 1인당 최대 15만원  
▲"새 구장 목표는 가을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개장

▲한예종 정건세, 베를린 국제 무용 콩쿠르서 금상  
▲안정환vs박항서... '몽쳐야 찬다4' 축구 리그 창설